

#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관한 탐색적 분석

## Exploratory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Expectation on the Benefits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강가려,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Jiali Jiang(jiali25@naver.com), Minjoo Rah(demosrah@cbu.ac.kr)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수익은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소비적 수익으로 구분하였고, 학생개인변인 및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산둥성 연태시의 2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300명 학생과 그들 학부모 300명,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등을 통해 집단 간, 항목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둘째, 성별, 학년, 성적 등 학생개인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셋째, 가정배경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넷째, 학부모와 학생 간에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다. 앞으로 고등교육정책이나 대학운영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대와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고등교육 | 교육수익 | 금전적·투자적 수익 |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 소비적 수익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o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expectation of Chinese high-school students on the benefits of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benefits were categorized into monetary-investment benefit, non monetary-investment benefit and consumptive benefit.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 according to independent student factors and family background were analyzed. The survey data on every high school's 300 students and 300 their parents total 1200 in 2 high schools in YanTai was put into the analysis.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and items were analyzed using Cross tabulation, ANOVA, etc with SP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high-school students' overall expectation on higher education benefits was high. Second, Expectation on higher education benefits differed according to independent student factors, such as gender, academic year, grade, etc. Third, expectation on higher education benefits differed according to factors of family background. Fourth, level of expectation on higher education benefits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differed.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such various expectations and differences when dealing with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university operation.

■ keyword : | Higher Education | Education Benefits | Monetary-investment Benefit | Non Monetary-investment Benefit | Consumptive Benefit |

\* 이 논문은 201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tramural research grant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5).

접수일자 : 2016년 01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3월 08일

수정일자 : 2016년 02월 15일

교신저자 : 나민주, e-mail : demosrah@cbu.ac.kr

## I. 서론

고등교육의 수요 변화와 양적 성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육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1990년대 말부터 대학입학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 고등교육인구가 크게 팽창하고 있다[1]. 2011년 현재 중국에는 2,762개의 대학교가 있고 대학생 수가 3,105만 여명에 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으로 대졸자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 수는 2003년 6,130천 명에서 2010년 9,570천 명으로 1.6배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학생 수는 11,086천 명에서 22,318천 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다.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이 점차 감소되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재화의 가격, 소득 변화, 인구 변화, 다른 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기호, 사회경제적 환경 등이 있다[2].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가격, 소득, 연관재 가격, 취향, 구입자 수, 미래에 대한 기대 수 등이 있다[3].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재화나 서비스의 현재 수요에 영향을 준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학령인구 규모, 사회계층 이동가능성, 경제성장, 가족구성, 교육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으면 더 나은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에 대한 기대수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요자인 고등학생이 지각하고 기대하는 수익이 고등교육수요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4].

그동안 중국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투자수익, 특히 금전적 수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sup>2)</sup> 예컨대 馬寧(2008)은 현재 중국의 고등교육 투자 개인수익률이 사회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5]. 侯建飛(2008)에 의하면 교육학력과 수익은 정비례 관계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익이 증가하였다[6]. 彭少春(2007)은 대학원생의 교육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수익을 금전적 수익률만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육의 수익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의 수익을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서 고등학생들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도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학경쟁률이 다소 낮아지고 입학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취업률과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졸업 후에 수익이 높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비경제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들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중국 고등학생들의 기대는 무엇인가? 둘째, 배경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고등교육수익의 개념과 유형

수익(benefit)은 주요 생산활동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

1) 중국사회과학원의 <2012년 중국대학생의 취업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생의 미취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학간 졸업생의 취업률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1년 현재 약 7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학력에 알맞은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 수익률 역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발전 보고서>에 의하면 고등교육 수익률은 2000년 28%에서 2001년 18.7%, 2007년에는 11.67%로 낮아졌다.

2) 예컨대 徐國興(2005)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수요는 가정배경요인, 사회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王杰(2004)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진학할 때 대학등록금의 영향을 받는다.

액이다. 수익이 경제적 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된 이후, 경제적 단위가 가능한 대상에 수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신수경(2000)에 의하면 수익은 금전적인 증가치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혜택도 측정할 수 있다[8].

고등교육이 경제의 다른 생산물과 같이 개인이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 ‘그 무엇’을 생산해 낸다고 할 때, 그 무엇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등교육의 수익이라 할 수 있다[9]. 교육경제학 분야에서는 1960년대부터 Weisbrod(1966)[10], Willis(1986)[11] 등에 의해서 교육수익을 노동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비노동시장으로 확대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교육수익의 개념은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증대로만 인식되었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녀 및 배우자의 건강, 건전한 가족계획, 제테크 등의 사적 수익과 범죄율 감소 등의 사회적 수익으로까지 확대되었다[5].

교육수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예컨대 Kiras et al.(1975)은 교육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으로 분류하였다[12]. 사적 수익에는 소득 증대, 소비적 이익, 적응력 향상이 있고, 사회적 수익에는 인력 공급, 사회적 생산성 증대, 발명과 혁신, 시민정신, 세대 간 효과, 외적 효과 등이 있다. Cohn(1971)은 소비적 효과, 외적 효과세대 간 효과로 분류하였다[13]. 또한 Bowen(1985)은 고등교육의 효과를 전통적 가족관계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자유화, 인지적 영향, 자아 발견으로 범주화하였다[13]. 교육수익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14].

국내의 경우, 광영우 등(2002)은 교육의 수익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전적 수익과 환산할 수 없는 비금전적 수익으로 구분하였다[15]. 또 그 수익이 비용을 지불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인적 수익과 국가와 사회에 주어지는 사회적 수익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은 교육을 받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현재나 미래에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교육은 투자적 성격과 소비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수익을 투자와 소비로 엄밀하게 구분하기

는 쉽지 않다. 한편, 백일우(2007)에 의하면 교육은 투자적 성격과 소비적 성격을 동시에 갖춘 혼합재(mixed good)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재화를 구입하는 목적이 투자적인가, 소비적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2]. 나아가 투자적 동기와 소비적 동기의 구분은 대학운영과 교육목적·방법 등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고등교육의 수익은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 금전적 수익과 비금전적 수익, 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수익보다는 사적 수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차적 소비자인 고등학생(학부모)이 기대하는 수익, 특히 대학진학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대수익은 주로 사적 수익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고, 투자적 수익은 다시 금전적 수익과 비금전적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수익에는 경제적인 부분 또는 비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행위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행위이다. 이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미래 소득능력의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대한다면, 이는 금전적 투자행위일 것이다. 한편, 개인은 노동시장 밖에서의 생산성 향상이나 잠재력의 증대로부터 다양한 비금전적 수익 또한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이는 비금전적 투자행위이다. 경제적인 수익만을 위해 받는 교육은 현재, 또는 미래에 일시적인 만족만을 갖게 하는 것이다.

## 2.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고등교육수익과 고등교육진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김동빈(1997)은 성별, 학업능력과 같은 학생변인과 세대주의 학력수준, 가계소득, 직업 등과 같은 가정배경변

인에 따른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수익 차이를 분석하였다[4]. 陸根書(2009)에 의하면, 교육수요는 부모의 학력 수준과 직업의 직종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16]. 徐國興(2005)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 열의가 높아졌다[17].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광호(2000)에 의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증가하면 고등교육수요는 증가하였다[18]. 백일우(1993)에 의하면, 고등교육의 가격변화가 교육수요에 영향을 주었다[2]. 또,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 시 교통 지리적 요인과 지역 간 이동요인을 고려한다.

고등교육의 수익과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역시 다양하다. 예컨대, 이희숙(2008)에 의하면 전공계열에 따라 교육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있는데 의학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의 수익률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의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 彭少春(2007)에 의하면 학력 간 교육투자 수익률은 대졸, 대학원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7]. 김희진(2010)에 의하면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20].

이를 종합하여 고등교육의 수요, 수익, 그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류하면,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그리고 학생개인변인과 가정배경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경제적 변인에는 직·간접적 교육비(대학교 등록금 및 과외 사교육비, 장학금, 지원금 등), 1인당 국민소득수준, 대졸자 취업률, 학력 간 임금 격차 등이 있다. 비경제적 요인에는 사회적 환경(인구 증가, 심리적 요인), 가정배경(부모의 학력, 부모의 사회적 지위, 가족 규모 등), 학교환경(대학의 명성과 질, 대학교의 교통 지리적 요인, 학교시설, 대학 유형, 전공, 교육내용 및 방법 등), 학생 배경요인(성적, 학업 성취도, 성별) 등이 있다. 고등교육수요에 관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분석에 초점을 두면 그 요인들은 학생변인과 가정변인, 그리고 국가·사회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변인에는 성별, 학년, 성적, 계열 등이, 가정변인에는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등이 포함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내용 및 대상

중국 고등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들이 기대할 것으로 가정한 고등교육의 수익은 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으로, 투자적 수익은 다시 금전적 수익과 비금전적 수익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금전적·투자적 수익이란 교육을 받은 결과로 미래에 얻게 되는 금전적인 수익이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 또는 취업에 대한 높은 금전적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높은 생애임금, 겸직 가능, 직위 승진, 합리적 소비생활을 말한다.

둘째,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이란 교육이 주는 투자제적 수익 중 비금전적인 방면의 주된 수익은 학습능력 향상과 인간의 생산력의 증가이다.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애 학습능력의 향상, 다양한 분야의 관련지식 배움, 가치관이나 인생관 정립, 다양한 취업기회, 적성에 맞는 직장 선택, 직업의 높은 만족감 및 성취감 획득, 더 나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 자녀 출산 및 효과적인 양육 수행을 말한다.

셋째, 소비적 수익이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실제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학교의 여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자체로서의 학교생활을 즐기고 얻게 되는 수익을 말한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학습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외의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취미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욕구 충족, 학교 내 생활을 통한 즐거움. 교수 및 동료 학생과의 친분 유지, 학교 외 사회활동의 즐거움과 보람,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의 명예를 말한다.

설문조사는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다. 산동성 연태시의 2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300명 학생과 그들 학부모 300명, 총 1,200명을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점 고등학교 한 곳과 보통학교인 고등학교 한 곳으로 제한적이거나 해당지역 전체 고등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학교에서도 학급, 성별, 성적이 골고

루 반영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학생의 회수율은 405부로 67%였고, 학부모의 회수율은 231부로 38%였다. 참고로 산동성은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많고 대학 입학시험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중국은 지역이 많아서 경제상황에 따라 교육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북경, 상해와 같은 특별시와 비교했을 때 연태시의 경제와 교육의 발전 수준은 비교적 중간정도로서 표집집단을 통해 중국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2. 분석 방법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하는지는 5단계 척도(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②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기대한다, ⑤ 아주 많이 기대한다)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개별 항목에 대한 기대와 영역별 기대를 분석하였다. 또,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응답자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응답자 배경변인은 학생개인변인과 가정배경변인으로 구분하였다. 학생개인변인은 성별, 학년, 성적, 문과·이과로 구분하고, 가정배경변인은 부모 학력, 직업, 가정 수입으로 구분하여 기대수익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성적은 기말시험의 성적으로 기준으로 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였고, 세대주의 학력은 중등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 및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 박사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먼저 각 수익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의 경향을 알기 위하여 각 문항의 빈도분석과 평균을 비교하고, 기대항목 간 차이를 교차분석( $\chi^2$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차이와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성별, 학생과 부모 간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분석할 때 t검정을 사용하였고, 학년, 성적, 부모 학력, 가정 수입에 따른 기대 차이를 분석할 때는 일원분산분

석법(F검정)을 사용하였으며, t검정을 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학생과 부모 간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 차이가 있는지, F검정을 사용하여 학년(1, 2, 3학년), 성적(상, 중, 하), 부모학력(중학교, 고등학교, 직업대학, 대학교)으로 구분하여 가정 수입의 중, 중상, 중, 하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정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Scheffé 방법을 적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학생의 기대 분석

1.1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결과, 평균이 3.45~3.73이고, 이 영역 전체는 3.58로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았다[표 1]. 또한 교차분석 결과  $\chi^2=68.71$ 로 항목 간 기대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높은 생애임금에 대한 기대가 3.73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직위 승진 및 사회적 직위변동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3.58로 직업을 통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은 3.57로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소비지식을 배우고 나서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소비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합리적이 소비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직 가능에 대하여는 고등학생들의 평균은 3.45로 비교적 낮았다.

표 1.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 학생의 기대 (단위: 명, %)

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높은 임금	2 (0.5)	6 (1.5)	161 (39.8)	165 (40.7)	71 (17.5)	405 (100)	3.73	.77
검직 가능	0 (0.0)	39 (9.6)	184 (45.4)	142 (35.1)	40 (9.9)	405 (100)	3.45	.79
직위 승진	3 (0.7)	6 (1.5)	187 (46.2)	169 (41.7)	40 (9.9)	405 (100)	3.58	.71
합리적 소비생활	1 (0.2)	13 (3.2)	189 (46.7)	158 (39.0)	44 (10.9)	405 (100)	3.57	.73
전체	6 (0.4)	64 (4.0)	721 (44.5)	634 (39.1)	195 (12.0)	1620 (100)	3.58	.75

$\chi^2=68.71, df=12, p=.000$

<sup>3)</sup> 2013년 산동성의 응시 고등학생수가 50만9천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하여 11,30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2010-2012년 산동성의 응시자 수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였으나 2013년 이후 고등학생 응시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를 나타낸다.

1.2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고등학생의 기대를 보면, 평균이 3.78~4.15이고, 이 영역 전체는 3.92로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았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chi^2=106.567$ 로 항목 간 기대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생애 학습능력 향상이 4.1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의 효과적인 수행이 4.02이고, 다양한 분야의 관련 지식을 배움이 3.93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적성에 맞는 직장 3.91, 가치관 및 인생관의 정립 3.87, 보다 다양한 취업기회 3.84, 더 나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 3.82, 직업 만족, 성취감 획득 3.78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2.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학생의 기대 (단위: 명, %)

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생애 학습능력 향상	1 (0.2)	4 (1.0)	52 (12.8)	224 (55.3)	124 (30.6)	405 (100)	4.15	.68
가치관이나 인생관 정립	0 (0.0)	5 (1.2)	101 (24.9)	215 (53.1)	84 (20.7)	405 (100)	3.87	.71
다양한 취업 기회	0 (0.0)	7 (1.7)	111 (27.4)	211 (52.1)	76 (18.8)	405 (100)	3.84	.72
적성에 맞는 직장 선택	1 (0.2)	9 (2.2)	108 (26.7)	219 (54.1)	68 (16.8)	405 (100)	3.91	.73
다양한 분야의 관련 지식 배움	2 (0.5)	5 (1.2)	101 (24.9)	216 (53.3)	81 (20.0)	405 (100)	3.93	.70
직업 만족 및 성취감 획득	2 (0.5)	3 (0.7)	141 (34.8)	175 (43.2)	84 (20.7)	405 (100)	3.78	.73
더 나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	2 (0.5)	5 (1.2)	85 (21.0)	200 (49.4)	113 (27.9)	405 (100)	3.82	.77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효과적인 수행	1 (0.2)	11 (2.7)	124 (30.6)	209 (51.6)	60 (14.8)	405 (100)	4.02	.76
전체	9 (0.3)	49 (1.5)	823 (25.4)	1669 (51.5)	690 (21.3)	3240 (100)	3.92	.73

$\chi^2=106.567, df=28, p=.000$

1.3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고등학생의 기대를 보면, 평균이 3.89~4.02이고, 이 영역 전체는 3.95로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높았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  $\chi^2=14.227$ 로 수익항목 간 기대수준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표 3.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 학생의 기대

(단위: 명, %)

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학습 욕구 충족	1 (0.2)	7 (1.7)	103 (25.4)	209 (51.6)	85 (21.0)	405 (100)	3.94	.77
학교내 생활을 통한 즐거움과 보람	1 (0.2)	6 (1.5)	107 (26.4)	190 (46.9)	101 (24.9)	405 (100)	3.98	.72
교수 및 동료 학생과 친분 유지	1 (0.2)	5 (1.2)	86 (21.2)	205 (50.6)	108 (26.7)	405 (100)	4.02	.77
학교의 사회활동의 즐거움과 보람	0 (0.0)	5 (1.2)	95 (23.5)	207 (51.1)	98 (24.2)	405 (100)	3.91	.74
대학생 신분 자체가 주는 명예	1 (0.2)	5 (1.2)	105 (25.9)	219 (54.1)	75 (18.5)	405 (100)	3.89	.71
전체	4 (0.1)	28 (1.4)	496 (24.5)	1030 (50.9)	467 (23.1)	2025 (100)	3.95	.74

$\chi^2=14.227, df=16, p=.899$

1.4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종합 분석

다음으로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영역 구분 없이 항목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chi^2=523.47$ 로 항목별로 기대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학습능력 향상(4.1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교수 및 동료학생과 친분 유지(4.02),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효과적인 수행(4.02)이었다. 반면, 겸직 가능(3.45), 직위 승진(3.56), 합리적 소비생활(3.57)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4.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고등학생의 기대 수준

(단위: 명, %)

구분	아주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아주 높다	평균	표준 편차
학습능력 향상	1 (0.2)	4 (1.0)	52 (12.8)	224 (55.3)	124 (30.6)	4.15	.68
교수 및 동료학생과 친분 유지	1 (0.2)	5 (1.2)	86 (21.2)	205 (50.6)	108 (26.7)	4.02	.77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효과적인 수행	1 (0.2)	11 (2.7)	124 (30.6)	209 (51.6)	60 (14.8)	4.02	.76
학교내외 생활을 통한 즐거움, 보람	1 (0.2)	6 (1.5)	107 (26.4)	190 (46.9)	101 (24.9)	3.98	.72
학습 욕구 충족	1 (0.2)	7 (1.7)	103 (25.4)	209 (51.6)	85 (21.0)	3.94	.77
다양한 분야의 배움 기회	2 (0.5)	5 (1.2)	101 (24.9)	216 (53.3)	81 (20.0)	3.93	.70
사회활동을 통한 보람	0 (0.0)	5 (1.2)	95 (23.5)	207 (51.1)	98 (24.2)	3.91	.74
적성에맞는 직장을 선택	1 (0.2)	9 (2.2)	108 (26.7)	219 (54.1)	68 (16.8)	3.91	.73

대학생신분 자체가 주는 명예	1 (0.2)	5 (1.2)	105 (25.9)	219 (54.1)	75 (18.5)	3.89	.71
가치관 및 인생관의 정립	0 (0.0)	5 (1.2)	101 (24.9)	215 (53.1)	84 (20.7)	3.87	.71
다양한 취업기회	0 (0.0)	7 (1.7)	111 (27.4)	211 (52.1)	76 (18.8)	3.84	.72
더 나은 배우자 만날 가능성	2 (0.5)	5 (1.2)	85 (21.0)	200 (49.4)	113 (27.9)	3.82	.77
직업 성취감 획득	2 (0.5)	3 (0.7)	141 (34.8)	175 (43.2)	84 (20.7)	3.78	.73
높은 생애임금	2 (0.5)	6 (1.5)	161 (39.8)	165 (40.7)	71 (17.5)	3.73	.77
합리적인 소비생활	1 (0.2)	13 (3.2)	189 (46.7)	158 (39.0)	44 (10.9)	3.57	.73
직위승진	3 (0.7)	6 (1.5)	187 (46.2)	169 (41.7)	40 (9.9)	3.56	.71
겸직가능	0 (0.0)	39 (9.6)	184 (45.4)	142 (35.1)	40 (9.9)	3.45	.79

$\chi^2=523.47, df=64, p=.000$

다음 [표 5]는 고등교육수익을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소비적 수익으로 크게 영역별로 분류하여 고등학생의 기대를 비교한 결과이다.  $\chi^2=5589.71$ 로 영역별 기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3.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3.92,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3.58의 순이었다.

표 5.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개관

구분	이주 났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이주 높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금전적· 투자적 수익	6 (0.4)	64 (4.0)	721 (44.5)	634 (39.1)	195 (12.0)	1620 (100)	3.58	.48
비금전적· 투자적 수익	9 (0.3)	49 (1.5)	823 (25.4)	1669 (51.5)	690 (21.3)	3240 (100)	3.92	.43
소비적 수익	4 (0.1)	28 (1.4)	496 (24.5)	1030 (50.9)	467 (23.1)	2025 (100)	3.95	.47
전체	19 (0.3)	141 (2.0)	2040 (29.6)	3333 (48.4)	1352 (19.7)	6885 (100)	8.82	.87

$\chi^2=5589.71, df=8, p=.000$

## 2. 배경변인에 따른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 분석

### 2.1 금전적·투자적 수익

#### 2.1.1 학생개인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다음 [표 6]은 성별, 학년, 성적에 따른 고등교육의 금

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성별로는 남학생의 기대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t=7.124, p<.001$ ). 학년별로는 3학년의 학생들이 제일 높은 기대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2학년, 1학년의 순이다( $F=3.713, p<.05$ ). 성적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20.008, p<.05$ ), 성적이하에서 상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

표 6.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 학생  
관련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	184	3.88	.47	7.124	.000***
	여	221	3.55	.44		
학년	1학년	126	3.63	.52	3.713	.025* 3)21
	2학년	108	3.67	.48		
	3학년	171	3.77	.44		
성적	상	122	3.85	.46	20.008	.025* 상)중)하
	중	191	3.73	.46		
	하	92	3.45	.44		

\* $p<.05$  \*\* $p<.01$  \*\*\* $p<.001$

#### 2.1.2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다음 [표 7]은 학부모 학력, 가정 수입 등에 따른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것이다. 학부모 학력의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학력에 따라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으로 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 $F=3.74, p<.05$ ). 가정수입 측면에서도 가정 수입에 따라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 $F=6.55, p<.001$ ), 또한 학부모가 학생보다 더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t=-1.94, p<.01$ ).

표 7. 고등교육의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 가정  
배경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부모 학력	중학교	139	3.66	.533	3.74	.011* 대)직)고)중
	고등학교	157	3.67	.45		
	직업대학	69	3.72	.47		
	대학교	40	3.93	.36		
가정 수입	상	197	3.77	.42	6.55	.000*** 상)중상)중)하
	중상	99	3.75	.49		
	중	71	3.54	.52		
	하	38	3.50	.54		
학생/부모 차이	학생	405	3.58	.41	-1.94	.002**
	학부모	231	3.64	.32		

\* $p<.05$  \*\* $p<.01$  \*\*\* $p<.001$

2.2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2.2.1 학생개인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고등학생들의 성별, 학년, 성적에 따라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의 경우, 3학년 학생의 기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1학년, 2학년 순이다(F=18.38, p<.001). 성적의 경우,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F=20.00, p<.05).

표 8.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 학생개인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	184	3.86	.41	-2.23	.170
	여	221	3.96	.45		
학년	1학년	126	3.87	.48	18.38	.000*** 3)1)2
	2학년	108	3.75	.45		
	3학년	171	4.05	.34		
성적	상	122	4.11	.34	20.00	.025* 상)중)하
	중	191	3.91	.42		
	하	92	3.68	.47		

\*p<.05 \*\*p<.01 \*\*\*p<.001

2.2.2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부모 학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 수입에서는 가정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F=7.53, p<.001). 또한 학부모보다 학생이 약간 높은 기대를 보였다(t=0.15, p<.05).

표 9.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 : 가정배경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부모 학력	중학교	139	3.92	.49	1.40	.242
	고등학교	157	3.87	.44		
	직업대학	69	3.96	.35		
	대학교	40	4.00	.30		
가정 수입	상	197	3.98	.31	7.53	.000*** 상)중상)중)하
	중상	99	3.97	.48		
	중	71	3.75	.57		
학생/부모 차이	학생	405	3.92	.43	.15	.018*
	학부모	231	3.91	.34		

\*p<.05 \*\*p<.01 \*\*\*p<.001

2.3 소비적 수익

2.3.1 학생개인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다음 [표 10]은 성별, 학년, 성적에 따른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의 경우, 3학년 학생의 기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학년, 2학년 순이다(F=21.88, p<.001). 성적이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F=15.65, p<.001).

표 10.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 : 학생개인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성별	남	184	3.93	.48	.86	.353
	여	221	3.97	.46		
학년	1학년	126	3.86	.54	21.88	.000*** 3)1)2
	2학년	108	3.79	.45		
	3학년	171	4.12	.36		
성적	상	122	4.13	.34	15.65	.000*** 상)중)하
	중	191	3.91	.47		
	하	92	3.79	.55		

\*p<.05 \*\*p<.01 \*\*\*p<.001

2.3.2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

가정배경변인에 따른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부모 학력, 가정 수입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생과 부모 간에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고등교육의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 : 가정배경변인별 차이

요인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부모 학력	중학교	139	3.93	.54	.39	.754
	고등학교	157	3.94	.46		
	직업대학	69	3.98	.41		
	대학교	40	4.01	.30		
가정 수입	상	197	3.98	.36	2.39	.068
	중상	99	4.00	.52		
	중	71	3.82	.58		
학생/부모 차이	학생	405	3.95	.47	.87	.351
	학부모	231	3.91	.39		

\*p<.05 \*\*p<.01 \*\*\*p<.001



### V. 논의 및 해석

중국 고등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금전적·투자적 수익 순이었다. 대부분의 중국 고등학생들은 취직을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과 생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韓玉(2011)에 의하면, 중국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것에 비하여 대학진학에 열의가 더 높고, 학부모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학 열의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21]. 고등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비경제적 교육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대학교육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으나, 고등교육 진학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수익별로 보면, 중국 고등학생들은 고등교육수익 중에서 생애 학습능력 향상 및 좋은 학습습관 배양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韓玉(2011)에 의하면, 중국 고등학생들은 취업여부보다는 자신의 자아실현 기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1].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에 가서 자신의 지식 및 능력 향상에 높은 기대를 보였다. 한국 고등학생과 비교해 보면, 한국 학생은 고등교육수익 중 학교내외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 중국과 한국 모두 소비적 수익을 중시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한국 학생들은 비학업적인 측면인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 학생들은 학업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것이 대조적이다. 한국 대학들에서는 입학 초기에 다양한 문화 활동이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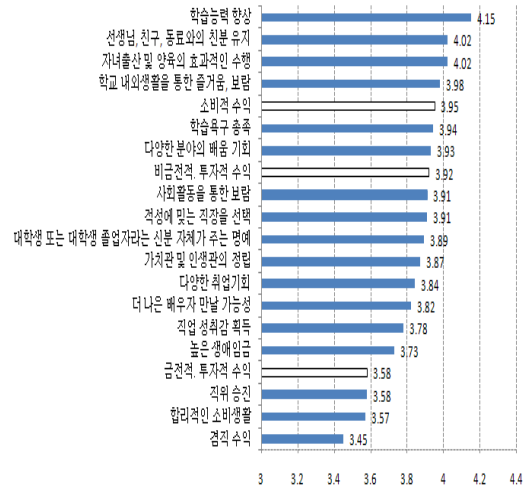


그림 1.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고등학생의 기대 수준(평균순)

다음으로 학생개인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적의 경우[그림 2], 학생의 성적이 좋을수록 교육수익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성적이 높으면 교육수익에 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林建(2007)는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수요를 분석한 결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수요가 더 많았다[22]. 徐國興(2005)에서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졸업한 후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원하는 반면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211공정 대학과 같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것을 보였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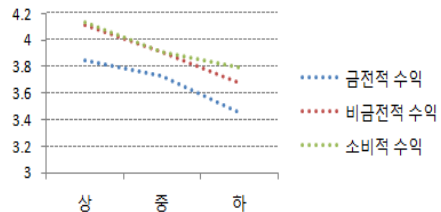


그림 2.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성적 기대 차이

학년의 경우[그림 3], 3학년 학생들은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소비재적 수익 모두에 대해 제일 높은 기대를 보였다. 비금전적·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에 대해서는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학생들

보다 기대가 높은 반면에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는 2학년 학생들의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은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徐國興(2005)는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 열의가 제일 높고, 3학년 학생들의 96.3%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17]. 王一敏(1998)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 가정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23]. 성별로는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만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기대가 높았다[그림 4]. 참고로 江斌(2009)은 여성 대학원생의 교육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교육수익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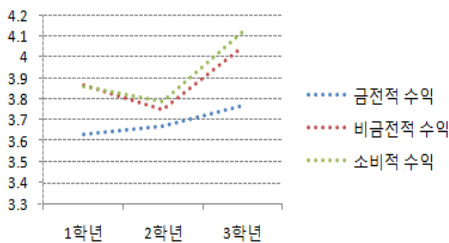


그림 3.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학년 기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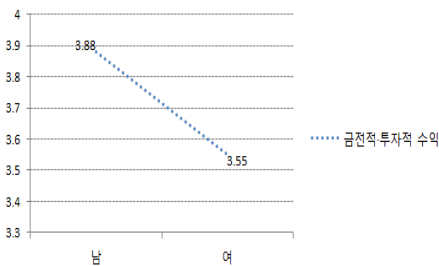


그림 4.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성별 기대 차이

또한 가정배경변인에 따라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가 있었다.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금전적·투자적 수익과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그림 5]. 또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6]. 羅汝珍(2011)에서도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은 진학 열의가 높았고, 학부모는 직위가 높을수록 자녀에 진학 기대가

높았다[25]. 王杰(2013)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할 때 가정요인, 즉 가정 공부 환경, 생활수준, 가정 분위기, 학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26]. 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은 좋은 생활환경에서 공부를 더 잘하고 대학교 진학열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가정배경에 따른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는 실제 고등교육 진학수요나 진행행태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중국에서도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형평성이 국가·사회적 관사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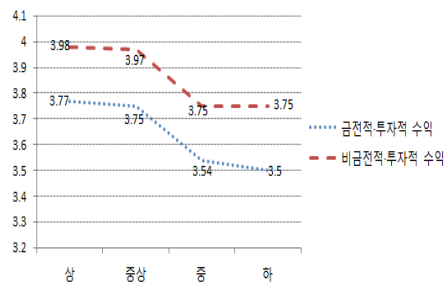


그림 5.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가정 소득별 기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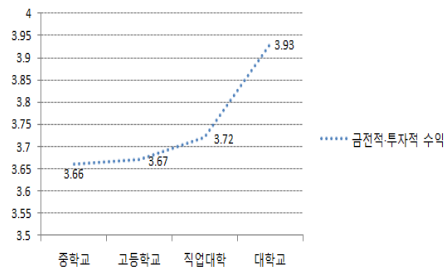


그림 6.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부모 학력별 기대 차이

학부모와 학생 간에도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가 있었다[그림 7].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기대가 높은 반면,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는 학생의 기대가 더 높았다. 학부모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금전적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취업률이나 소득수준에 더 민감할 것이나, 학생들은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에 비해 고등교육수익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학부모

들은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들보다 더 높은 기대수준을 보여 학부모의 교육열이 대학진학을 추동하는 핵심요인이었다[4]. 王杰(2013)에 의하면, 중국 고등학생은 학부모의 진학요구가 아니라 능동적 입학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학습욕구와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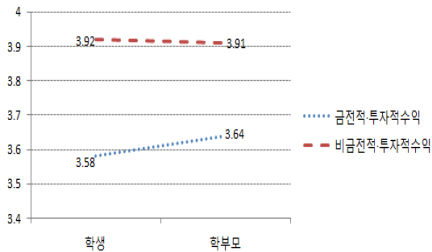


그림 7.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기대 차이

##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와 배경변인에 따른 기대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대수익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소비적 수익 모두 높은 기대를 보였다. 특히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생애 학습능력 향상을 가장 높게 기대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는 배경변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학생개인변인에서 성별, 학년, 성적에 따라 분명한 기대차이를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고등교육의 비금전적·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에 대해서는 3학년 학생들의 기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에 따른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해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가정배경변인, 즉 부모의 학력, 가정수입에 따라서도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금전적·투자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과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는 학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를 보면, 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는 학생보다 학부모의 기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서는 학생의 기대가 더 높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으면 미래 장기적인 비금전적 교육수익이 클 것이라고 학부모보다 더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 학생의 대학진학욕구는 학부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국에서 고등교육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취업난 심화, 수익률 감소와 같이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이 점차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높은 기대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금전적 수익보다는 소비적 수익, 비금전적·투자적 수익에 대해 기대가 높았고, 학부모보다도 더 높은 기대수준을 보였다. 중국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는 좋은 대학생활과 높은 수준의 대학 교육의 질을 원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들은 금전적 수익을 위해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수익을 더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중국 고등학생들은 소비적 수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 좋은 교육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수요는 단순히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적 동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졸자 취업률이나 금전적 수익률, 혹은 학력 간 임금 격차나 학력에 따른 불이익 방지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 경제적 여건에 맞는 진로와 진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전략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생의 소비적 수익 만족을 위해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고 대학은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비금전적·투자적 수익 중 생애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가 중국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으므로 학습욕구 충족과 더불어 전생애적 관점에서 학습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대학수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내외 활동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학은 교과를 통한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개혁하는 것은 물론, 학교내외의 동아리 및 봉사 활동, 축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개인 및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가 크므로 이러한 기대 차이로 인해 고등교육기회에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등학생의 대학입학, 즉 대학진학률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대졸자 취업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업위주의 교육으로 대학교육의 본질과 대학의 정체성이 점차 혼미해지는 상황에 있고, 과잉교육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리 적정 대학인구, 적정 대학 수에 관한 국가·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국 고등학생의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 차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와 예비적 연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개 고등학교의 3개 학급의 학생을 과학적으로 선정하였지만 앞으로 조사대상은 한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 더 많은 도시나 성(省)의 고등학교를 조사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이후 고등교육의 수요변화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특정 지역의 매우 제한된 표집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탐색적인 수준의 연구이므로 앞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표집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적으로 목표하는 특정집단(가정배경, 성적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수익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고등교육수익, 고등교육진학과 관련하여 개인적, 가정적 배경뿐만 아니라 지역적, 경제적

변인까지 포함된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국가 간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허홍화, 중국 고등교육제정 지역간 형평성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 백일우, 교육경제학, 서울 학지사, 2007.
- [3] N. G.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6th ed.* Cengage Learning, 2012.
- [4] 김동빈, 고등교육의 수익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5] 馬宁, 高等教育个人投資成本收益分析, 西安建筑科技大学 碩士學位論文, 2008.
- [6] 侯建飛, 高等教育投資的成本收益分析: 以个人爲主体對象的研究, 重慶工商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7] 彭少春, 碩士研究生教育的成本收益分析,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8] 신수경, 교육단계별 교육투자 수익률,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9] 임성연, 한국 고등교육의 비용-수익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10] B. A. Weisbrod, "Investing in Human Capit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 pp.1-21, 1966.
- [11] R. J. Wills, "Wage Determinants: A Survey and Reinterpretation of Human Capital Earning Function," *Th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1, pp.525-602, 1986.
- [12] F. G. Kiras and S. J. Mushkin, *Educational Outcomes Meas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1975.
- [13] E. Cohn, *The Economics of Education*,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71.
- [14] H. R. Bowen, *The Effects of Going to College*,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85.

- [15] 박영우, 김명수, 반상진, 최준렬, *교육경제학*, 한국교육행정학회지, 2003.
- [16] 陸根書, 劉珊, 鐘宇平, “高等教育需求与專業選擇中的性別差异及其影響因素分析,” *高等教育研究*, 第30卷, 第10期, pp.14-29, 2009.
- [17] 徐國興, *高中生的大學升學抱負和升學選擇兼論其他社會經濟因素的影響*, 東京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 [18] 이광호, “경제관련 변인이 교육수요에 미치는 영향: 고등교육수요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39-56, 2000.
- [19] 이희숙, *고등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Mincer의 소득함수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20] 김희진, *학력간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1] 韓玉, *高中生升學与就業趨勢問卷調查分析報告*, 石家庄外國語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22] 林建, *高中生个人高等教育需求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23] 王一敏, *当代青年的職業選擇与指導*, 上海教育出版社, 1998.
- [24] 江斌, *我國女大學生教育投資的經濟分析*, 中國海洋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25] 羅汝珍, *高中畢業生升學意願的導向机制*, 中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26] 王杰, *中國教育收益率及其影響因素研究*,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저 자 소 개

강 가 려(JiaLi Jiang)

정회원



- 2013년 8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행정 석사)
- 2013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행정 박사 수료
- 2014년 9월 ~ 현재 : 한국지방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관심분야> : 교육행정, 고등교육, 예술교육 등

나 민 주(MinJoo Rah)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행정 박사)
- 1998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2년 9월 ~ 현재 :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소장

▪ 2014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인증원 원장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재정, 고등교육 등